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에 대하여

— ‘흔들린 조공질서’와 ‘이성적 대화’를 중심으로—
임형택,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창비, 2014)에 대한 리뷰*

류준필**

1. ‘흔들린 조공질서’, 16~19세기 동아시아세계론
2. ‘이성적 대화’의 주체성, 실학적 각성
3. ‘이성적 대화’ 인식의 문제점
4. 당대 동아시아 담론과의 대화

〈국문초록〉

임형택이 제안하는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이란, ‘중국-한국-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세계 속에서, 한국을 중간자(매개자)로 설정하려는 의도의 산물이다. 임형택은 16~19세기의 동아시아를 ‘흔들린 조공질서’라고 명명하고, ‘이성적 대화’라는 규범적 사례들을 살핀다. 하지만, 동아시아세계를 균질적인 평면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성적 대화’라는 규범성은, 공간적으로 균질적 확장, 시간적으로 목적론적 투사로 이어지기 쉽다. 아울러, 현재 동아시아세계는 규모와 위상을 달리 하는 다양한 정치체(political bodies)가 공존하고 있으므로, 균질적 규범화만으로는 동아시아세계 인식에 크게 기여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을 위해

* 이 글은 정부의 재원으로 교육부의 지원을 받음(KRF-2007-361-AM0013).

** 인하대학교

서는, 동아시아세계의 재구성이 필수적이다.

주제어: 임형택,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흔들린 조공질서', '이성적 대화', 실학

1. '흔들린 조공질서', 16~19세기 동아시아세계론

동아시아론의 대두 이래로 '동아시아'를 학문적 주제로 삼아 꾸준한 탐색을 지속해온 대표적인 학자가 임형택 선생이다. 선생은, 널리 알려져 있듯이 학술사적으로 조선후기 실학의 학적 전통을 계승한다고 자임하는 분이다. 특히 21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한국학을 동아시아적 지평에서 조망하는 한편, 그와 더불어 실학의 현재적 재인식에도 힘을 기울여왔다. 스스로 밝히길,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이란 "지역적 인식"을 방법론적 시각으로 견지하는 것이라 한다. '지역적 인식으로서의 동아시아'란, 일국주의와 세계주의라는 자기폐쇄적·물주체적 편향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시야를 동아시아적 지평으로 확장한다는 뜻이다.¹⁾

이러한 시각 전환을 통해 기존의 한국학적 인식 구도는 새로운 규정을 얻게 되었다. 실학의 역사적 의의가 서세(서학)동점의 시대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흥한 학술운동으로서 재규정되고, 실학을 배태한 동아시아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흔들린 조공질서"라는 명칭이 부여된다.²⁾ 17~19세기를 격동의 시대로 파악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시각과 중첩되지만, 서세의 사상적·현실적 압력이 동아시아 지역에 부가됨으로써

1) 임형택,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창비, 2014, 5-6쪽.

2) 관련 논의들은 다음의 글에서 두루 확인된다. 임형택, 「19세기 말 20세기 초 동아시아, 세계관적 전환과 지식인의 동아시아 인식」, 『대동문화연구』 50, 2005; 「동아시아 실학의 개념 정립을 위하여」, 『한국실학연구』 18, 2009, 15-24쪽; 「17-19세기 동아시아 상황과 연행·연행록」,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115-121쪽; 「동아시아 국가간의 '이성적 대화'에 관한 성찰」, 같은 책, 187-189쪽.

초래된 상황이라는 인식을 훨씬 강조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지역인식(지역주의)의 의의를 부각함으로써 훨씬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인식 구도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일국주의·세계주의적 편향을 제어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적 지평이란 적어도 세 가지 차원을 동시적 문제로 파악하겠다는 태도의 적극적 표명이 될 수밖에 없다. 서세동점이 상징하는 서구를 아우르는 차원, 동아시아적 차원, 한국(한반도)적 차원.³⁾ 이 세 차원의 복합성을 인정하되 그 문제와 의의를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지평에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론이 선생 개인에게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서학을 사상적 촉매로 하여 유학을 갱신하려 했던 학술운동으로서, 서세동점의 세계사적 추세에 직면하여 유학을 근대 사상으로 개혁하고자 한 시도”라는 시각에서 실학의 역사적 성격을 파악하고, 그 연장선에서 박지원을 “서도(西道)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상적 혁신을 추구”했던 존재로 재평가하는 노력이 호응하고 있기 때문이다.⁴⁾

물론 17~19세기를 ‘흔들린 조공질서’라고 설정하는 방식과는 견해를 달리 하는 시각도, 특히 중국이나 일본의 학계에서 제기되어 왔다. 중국 학계에서는 17세기 이후로는 이른바 ‘동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적 단위로 묶을 만한 문화공동체적 인식이 와해되었다는 견해도 있고, 조공질서에서 이탈한 일본의 존재를 부각함으로써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해명하는 데에 조공 질서가 차지하는 의의를 중시하지 않으려는 의견도 일본학계에서 제기되었다.⁵⁾ 전자가 ‘동아시아’라는 지역 범주의 역사적 성격을 사

3) 물론 이 세 차원은 ‘한국’이라는 수준에서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다.

4) 김명호, 『연암 문학의 심층 탐구』, 돌베개, 2013, 113-116쪽. 물론 두 분의 시각이 일치한다는 뜻은 아니다.

5)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葛兆光, 「從“朝天”到“燕行” - 以朝鮮使者在明清帝國旅行記爲中心討論十七世紀中叶后東亞文化共同体的解体」, 『중국과 중국학』 3호, 2005; 夫馬進, 「一六〇九年 日本の琉球併合以降における中國・朝鮮の対琉球外交—東アジア四国における冊封・通信そして杜絶」, 『朝鮮史研究会論文集』46, 2008.

소화하는 시각이라면 후자는 '조공(책봉) 질서'에 내포된 역사적 의의를 경시하는 시각이다. 중국을 동아시아라는 범주에 매이지 않도록 하거나 동아시아를 개별적 국가 단위로 환원하려는 입장에 다름 아니다.

'흔들린 조공질서'란 결국 이런 반론들과 맞서야만 입론의 근거가 확보 될 것인바, 17세기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해체론에 대해서는 "동아시아세계의 해체를 논하자면 세계사적 관점에서 서세동점의 추세를 응당 살펴야 할 것이며 마지막 해체로 가기까지 단계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반비판의 핵심이다.⁶⁾ 중국중심의 동아시아세계의 해체는 서구세력의 동점과 분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계적 과정을 설정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아울러 유구국과의 외교 문제를 근거로 이 시기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중국과 일본의 대립구도"로 보려는 시각에 대해서는, "유구국에 초점을 맞춰 보더라도 일본에 (그것도 막번체제하에서 하나의 번에) 종속된 한편으로 중국과 전통적 관계 또한 단절된 상태가 아니었다. 유구국이 일본의 한 현으로 전락한 19세기 말과는 단계적 구분이 없을 수 없다"⁷⁾고 반론함으로써, 조공질서의 흔들림에 내재하는 단계성을 부각하였다.

제1기 명청 교체기, 해로사행

제2기 반청의식에 사로잡힌 시기

제3기 실학적 각성의 시기

제4기 조공체제 해체의 시기

위에서 보이는 시기 구분은 17~19세기 연행의 역사를 시기 구분한 것이지만, 이것은 동시에 흔들린 조공질서의 시기구분이기도 하다. 여기서 제2기는 청이 건국한 1636년으로 구획선이 분명하고, 또 제4기의 종결 시점 또한 청일전쟁이 발생한 1894년으로 확정할 수 있다. 다만, "제3기 실학적 각성의 시기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단언

6) 임형택, 「17~19세기 동아시아 상황과 연행·연행록」, 119쪽.

7) 임형택, 「동아시아세계의 지식교류 양상」,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141쪽.

하기 어렵"다. 대신에 "한국 학술사에서 설정하는 실학시대와 대략 일치한다고 본다." 제4기는 19세기 중반부터 뚜렷해지는데, 마지막으로 통신사를 파견한 1811년에 사대교린의 틀이 깨어졌고 아편전쟁이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한다.⁸⁾

흔들린 조공질서의 시기구분은 분명 조공질서의 해체 과정을 단순화하지 않고 세밀하게 접근해야 역사적 실상에 접근할 수 있다는 신중론처럼 들린다. 그렇지만 이 신중함 속에는 묘한 자의식이 느껴져 흥미롭다. 한편으로는 조공질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자기 중심성을 부정하는 태도를 역으로 비판함으로써 동아시아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제어하려고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조공질서 바깥에 있는 일본이 동아시아세계 질서에 쉽게 진입하는 것을 막아서려는 듯하기 때문이다. 이러할 때 어떤 효과가 생겨나는가 묻는 것은 동아시아적 지평에서 재조정되는 한국학의 (무)의식적 욕망을 검토하는 일이기도 하다.⁹⁾

'흔들린 조공질서'는 동아시아세계의 내부적 요인이 일차적이지는 않다. 명칭 교체로 인해서 커다란 동요가 생겨났지만 그 또한 부차적이고 핵심은 "서세의 출현"이다. "서세의 출현은 그 자체로서 중국중심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무너뜨렸"으니 "17~19세기 동아시아세계에 있어서 조공질서의 흔들림은 주요인이 외풍에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 일본의 위상

8) 임형택, 「17~19세기 동아시아 상황과 연행·연행록」, 128-129쪽.

9) '흔들린 조공질서'는 일본학계의 '동아시아 근세론'과 상대적으로 호응되는 바 많아 보인다. 가령 기시모토 미오(岸本美緒) 같은 일본의 중국사연구자는 15·6세기~18·9세기를 하나의 연속체로 보고, 지역적으로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세계를 하나의 단위로 삼을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해당 시기를 '조공질서의 동요(1570년대)·조공질서에의 도전(1630년대)·조공질서의 재정비(1680년대)·전통사회 형성기(18세기말)'로 구분하는 방식은 '흔들린 조공질서'의 시기구분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동아시아 근세론'이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동아시아의 근세'의 독자성을 부각하려는 뜻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런 점에서 서세동점의 외부적 상황을 훨씬 근원적인 조건으로 이해하는 '흔들린 조공질서'와는 달리 제국주의 침탈 이후의 근대와 직접 관련을 짓는 인식을 비교적 유보하는 듯하다.(岸本美緒, 「東アジア東南アジア傳統社會の形成」, 『岩波講座 世界歴史 13』, 岩波書店, 1998)

또한 이러한 전제 위에서 구상된다. “일본은 서세동점의 전지구적 변화의 물결을 타고 조공질서를 흔드는 역할을 앞장서 수행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조공질서가 흔들리기는 해도 해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조선은 일본에 통신사를 계속 파견해 ‘사대교린’이라는 동아시아세계의 전통적인 국제관계를 지속해갔”고 “일본 또한 조선과의 통신사외교를 통해서 조공체제에 간접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¹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듯이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이란 ‘중국-한국-일본’의 구도 속에서 한국=중간자(매개자)로 설정하려는 의도의 산물로 보인다. 이때의 ‘한국’이란, 서세동점이라는 불가피한 현실을 인정함으로써 서학의 시각을 원용해 중국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자리이자¹¹⁾, 표면적으로는 조공질서 바깥에 있는 일본을 비록 간접적인 형식이지만 조공질서 내부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이다.

박지원의 북학론이 자아의 각성에 따른 주체의식이라고 할 때, 그 주체성의 의미는 “華夷之分(화이지분)”이라는 명분론의 틀은 인간세상의 편견일 뿐, 하늘의 공평한 안목으로 보면 그런 차등이 있을 수 없다”는 천명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홍대용 또한 지구는 둥글어 중심이 따로 없고 둥근 지구가 하늘을 돈다는 과학적(즉 서구적) 우주관에 입각해서 “화이론의 內外之分을 상대적인 것으로 설파”한 사상가이므로, 이러한 ‘주체적’ 비판의 유효성을 위해서라도 중국은 동아시아세계의 중심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인데, 중국과의 조공 관계가 끊겼다 하더라도 동아시아세계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일본의 참여도 한국을 매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에도시대 일본은 다분히 ‘탈중국중심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에도시대의 일본은 당시 조선과 마찬가지로 한자문화의 세계에 소속했음이 분명하다”는 규정은 그래서 강조된다.¹²⁾

10) 임형택, 「17~19세기 동아시아 상황과 연행·연행록」, 119-121쪽.

11) 임형택, 「동아시아세계의 지식교류 양상」, 138-142쪽.

12) 임형택, 「17~19세기 동아시아 상황과 연행·연행록」, 120-121쪽; 127쪽.

2. '이성적 대화'의 주체성, 실학적 각성

'흔들린 조공질서'는 넷으로 나눈 시기 구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간적으로도 급격한 동요를 거치며 와해되는 과정이며 동시에 공간적으로도 지역 내적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채 어긋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공질서를 중핵으로 삼아, 궁극에는 해체에 이르는 것이 '흔들린 조공질서'의 기본 입장이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의 지역적·공간적 범주에 역사적 근거를 부여하게 된다. 그렇지만, 설령 이러한 입론에 동의한다고 해도 이것은 여전히 형식적 범주 설정에 가깝지 실체적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돌이켜 보면 흔히 유교를 통해 동아시아의 (문화적) 동질성을 거론하곤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동아시아=유교라는 등식이 통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또한 자본주의와의 친연성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경우를 벗어나면 지나치게 막연한 논리이거나 보수적 자기방어 기제로 활용되는 수준이었다. 아울러 서구문명과 대비되는 문명론의 차원으로 확장되면, 마치 유교가 아무런 역사적 변화도 겪지 않은 이념·사상인 듯이 취급된다. 그렇지만 '흔들린 조공질서'가 특정한 역사적 시대를 지시하는 개념이고, 그 속에서 다시 여러 단계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시각에서 검토하는 유교라면 그 함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¹³⁾

기실 조공질서의 흔들림 속에서도 전향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노력이 존재했었다. 시간적으로 조공질서의 흔들림 제3기에 해당하고 공간적으로 조선에서 수행되었던 '실학'이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다. 제3기의 명칭이 "실학적 각성의 시기"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기적으로 제3기의 구간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보았던 바이지만 대체로 18세기 중엽~19세기 중엽 정도에 해당된다.

이 시기의 '흔들린 조공질서'에서 길어 올린 생산적 가능성은 실학적

13) 임형택, 「동아시아에서 유교문화의 의미」,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212-216쪽.

각성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이성적 대화”로 집약된다. 애초에 ‘이성적 대화’는, 정약용이 일본의 학술(고학파의 경학)적 성취를 높이 평가하여 청(淸)의 학자들의 학설과 더불어 일본의 학적 성취를 적극 수용하는 장면을 기술하는 데서 출현하였다. 일본을 향한 새로운 인식은 박제가와 같은 북학파에서 그 단초를 보였던바, 그 이면에는 “민족의 자아와 자주를 각성”한 사상적 전환이 진행되었던 때문이다. 그렇지만 북학파는 일본으로 향하는 개방의 길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던 반면에, 이익에서 발원하여 정약용으로 이어지는 성호학파에서는 ‘이성적 대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¹⁴⁾

일본 학술을 존중하여 ‘이성적 대화’를 시작한 것은 실학자의 양식이지만 거기에는 세계관의 문제까지 개재되어 있다. 중국중심의 세계에 매몰된 상태에서는 자아를 망실하게 됨은 물론, 중국도 일본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진정한 이해와 우호가 생겨날 것인가? 그리고 조선을 주자학적 세계 회복의 기지로 생각하는 신념은 한낱 중국중심적 세계관에서 파생된 소중화의식의 변종일 뿐인데, 게다가 독선적이어서 자폐징후가 보이기 마련이었다. 한국 실학의 사상사적 의의는 무엇보다 이 중국중심적 세계관의 극복에서 찾을 수 있다.¹⁵⁾

위의 인용문에서 핵심적인 대목은 “중국중심적 세계관의 극복”이다. 이 세계관의 전환은 보다 구체적으로 “주자학적 세계 회복의 기지로 생각하는 신념”을 넘어서는 길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세계관적 전환과 극복의 도중에 출현한 사건이 ‘이성적 대화’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성적 대화는

14) 정약용에게서 일본 인식의 전환이 가능했던 요인으로, 첫째, 동아시아에는 ‘보편적 고전’을 기초로 하는 ‘보편적 지식의 세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둘째, 17세기 이래 통신사의 왕래 일본의 서적 등 관련 지식·정보의 유입이 확산되고 있었으며, 셋째, 성호학파 내부적으로 일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계승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임형택, 「동아시아세계의 지식교류 양상」, 148-149쪽.

15) 임형택, 「계미 통신사와 실학자의 일본관」, 『창작과비평』85호, 1994, 334-335쪽.

‘흔들린 조공질서’라는 역사적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학적 인식이자 성취가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동아시아의 오늘, 상호간의 우호와 연대를 가로막는 ‘심리적 장애물’은 요컨대 이 지역이 서구주도의 근대세계로 편입된 19세기 말 이후로 형성된 것”임을 직시하고, ‘하나의 동아시아’로 향해 가기 어려운 난관들이 중첩된 현실 속에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가능성을 예감케 하는 현상”을 ‘흔들린 조공질서’의 역사 속에서 검출하려는 노력인 것이다.¹⁶⁾

이러한 이성적 대화는 성호학파의 일본관이나 북학파의 중국관 등과 같이 혁신적 진전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홍대용과 중국 지식인 사이의 유명한 교유 장면을 펼쳐보였다. 더 나아가, 대청외교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 중국과 조선 각각에 ‘피아(彼我)의 균형’을 취한 『사대고례(事大考例)』를 정약용이 편찬한 사례나 김정희가 청의 학예를 적극 수용하려 한 실사구시적 지향으로까지 확대되어 나갔다.¹⁷⁾ 물론 이후의 역사가 이성적 대화의 진전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지는 못하였지만, 실학적 각성에 기초한 이성적 대화가 보여준 가능성은 평가할 만하다. “각기 자율과 평등에 기초한 것이 아니면 진정한 의미의 보편성은 될 수 없으리라 여겨”지고 “‘이성적 대화’는 진정한 의미의 보편성으로 가기 위한 정신운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⁸⁾

이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이성적 대화’란 자율·평등·보편 등을 가치로서 함축하는 인식과 실천을 뜻한다는 사실이다. 자율·평등·보편이라는 하나의 가치 연쇄가 의의가 없을 수 없을뿐더러 거기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없다. 그것은 위계와 억압을 낳는 권력 관계를 해소할 때야 열리는 지평일 것이므로 그 규범적 효과 또한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그런 만큼이나 자명한 가치 천명의 반복 재생으로 흐르기 쉬운 것은 아닐까 하는 반문이 생겨난다. ‘이성적 대화’

16) 임형택, 「동아시아 국가간의 ‘이성적 대화’에 관한 성찰」, 153-154쪽.

17) 임형택, 「동아시아세계의 지식교류 양상」, 142-147쪽.

18) 임형택, 「동아시아세계의 지식교류 양상」, 152쪽.

가 주로 실학자의 학적 인식을 염두에 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성적 대화’의 주체가 너무 균질적인 규범성을 환기하기 때문이다.

이 균질성은 흔들린 조공질서로 표상되는 동아시아세계의 공간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간적 차원에서도 규범화되어 버리기 십상이다. 실학적 각성으로부터 규범적 사례를 도출하면 이에 대비되는 부정적 경험들은 소거해 버린 채, 공간적으로는 균질적 확장과 시간적으로는 목적론적 투사로 이어지기 쉽다. 가령 ‘자율·평등·보편’이라는 가치도 역사적 맥락을 벗어나 추상적 규범으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아시아세계를 ‘중국·한국·일본’의 관계로 한정하더라도, ‘자율·평등·보편’은, 규모와 힘뿐만 아니라 각각의 내적 맥락 또한 달리하는 조건 속에서의 가치라 해야 할 것이다. 이성적 대화의 이면에는, 동아시아세계라는 지역 공간을 중국·한국·일본이 병렬되어 있는 균질적 평면 공간으로 전제하는 인식틀이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이란 서세동점이 상징하는 세계적 차원, 동아시아적 차원, 한국(한반도)적 차원의 복합적 인식이라고 언급했지만, 균질적 평면으로 인식된 동아시아세계의 지리적 공간 심상은, 한국이 있고 그 바깥에 동아시아가 있고 또 그 너머에 세계가 있다는 동심원적 평면도로 작성된다. 물론 이러한 심상지리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방향은 동아시아세계 내부에서 한국의 위상과 특성을 해명하는 시각의 상대성을 보장해 주는 경로이므로, 이런 관심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동아시아적 지평이라고 하면, 한국을 단위로 하더라도 ‘세계적 차원+동아시아적 차원+한국적 차원’이 한국에 내재적임을 전제하는 시각이어야 한다. 달리 말해 한국에 대한 인식에 여러 차원을 도입함으로써 복합적 구조로 입체화하는 입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이성적 대화’ 인식의 문제점

이 문제를 한·일간의 ‘이성적 대화’라는 주제로 좁혀서 다루어 보자.

임형택 선생은 조선 실학자의 일본 인식을 다룬 경험에서 더 나아가 통신사행의 과정에서 일본 지식인이 조선 지식인을 만나서 남긴 기록을 검토하였다. 1719년 기해년의 통신사행에 대응하는 일본 측 자료인 『항해헌수록(航海獻酬錄)』을 살핀 다음 ‘이성적 대화’로의 진전 가능성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한일 간에 학술교류가 가능한 접점은 성리학(주자학)이었다. 토꾸가와 막부가 주자학을 국학으로 공인함으로써 해서 한일 간 대화의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화주의의 테두리에 갇혀 있는 주자학을 가지고는 ‘이성적 대화’로 진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1748년 무진년과 1764년 계미년의 통신사행에 대응하는 『홍려경개집(鴻臚傾蓋集)』과 『동사여담(東槎餘談)』에서도, 문학적 경향을 따지고 주자학적 입장만을 견지하는 조선측과 고문사학과적 입장만을 앞세우는 일본 지식인 사이의 어긋남을 읽는다. 그러다가 난구우 타이슈우(南宮大湫, 1728~1778)의 『강여독람(講餘獨覽)』을 검토하고서, 학문의 중지를 한학(漢學)과 송학(宋學) 중 어디에 둘 것인가에 관한 논란이 조선의 제술관 남옥(南玉)과 난구우 사이에 있었음을 보이며 “(조선측에서는) 성리학을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상대방의 장점을 수용하고 논의의 접점을 찾으려 한 태도”에 근거해서 “학술교류가 ‘이성적 대화’의 첫 단계로 올라선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였다.¹⁹⁾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계미 통신사행에서 발아된 이성적 대화의 첫 단계는 그 자체로도 중도반단의 일이었다고, 쓰시마까지만 도달했던 1811년 신미 통신사행을 끝으로 흔들린 조공질서 속에서 공식적인 한일 관계는 매듭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상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던 것이 역사의 실상이다. 이를 감안할 때 계미 통신사행의 의의는 적지 않고 거기서 이성적 대화의 한계와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각 또한 타당해 보인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해 방식에 적잖이 공감한다 하더라도, 이

19) 임형택, 「동아시아 국가간의 ‘이성적 대화’에 관한 성찰」, 171-187쪽.

시기의 한일 관계에 접근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것은 '이성적 대화'의 실제 함의가 무엇인지 따져보는 일이기도 하다.

첫째, 이성적 대화를 학술적 토론과 거의 동일시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임형택 선생의 기본 입장이 제3기 실학적 각성에 초점을 둔 데서 연유한 듯하지만, "일본측이 한일 간의 만남을 싸움의 구도로 추구했던 것은 분명하다"거나 조선 측에서는 송유(宋維)의 학 이외의 학술적 언급은 자제함으로써 주제가 문학에 한정되었다는 평가²⁰⁾와도 관련이 된다. 『춘추』 이래로 외교적 관행이 사시(使詩)에 있음을 감안하면 한시의 수창은 그 문화적 수준을 내보이는 기회이자 의례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일본 한문학의 성장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싸움의 구도"는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현상이라 할 만하다. 아울러 그 이면으로 일본의 한문학적 역량 강화가 환기된다는 점에서 보자면, 이 시기 일본에서는 동아시아세계 내부로의 접근 운동이 어느 때보다도 활발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미야세 류우문(宮瀨龍門)과 이언진(李彦珍)의 만남은 명대 이래의 고파적 문학 경향이 한일의 문화적 규범으로 상승하는 장면을 보여준다.²¹⁾ 따라서, 국가 공식 외교 사절의 학술적 대화보다는 한시의 수창과 문학적 논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훨씬 '이성적 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둘째, 문학과 학술의 구분도 문제가 있지만 '이성적 대화'가 함축하는 자율·평등·포괄 등의 의미도 다소 평면적이라고 판단된다. 가령 1719년 기해 통신사행에서 신유한과 미즈타리 헤이잔(水足屏山)·아메노모리 호오슈우(雨森芳洲)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다. 거기에는 일본에서는 조선을 중화와 같다고 해서 당인(唐人)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일본측(아메노모리)의 답변이 있는데, 이에 대해 "'조선인'을 '당인'이라고 일컫는다 해서 참으로 우리를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당시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조선은 중국과 정식 수교를 할 수 없는 처지에서 '핑 대신

20) 임형택, 「동아시아 국가간의 '이성적 대화'에 관한 성찰」, 177쪽, 180쪽.

21) 임형택, 「동아시아 국가간의 '이성적 대화'에 관한 성찰」, 176-180쪽.

답'이었던 셈이다. 조선을 조선으로 인식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 된다.”고 해석하였다.²²⁾ 이 삽화의 해석에는, 중국중심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조선을 조선으로 인식할 때야만이 자율과 평등을 통해 보편에 이르는 경로가 열린다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을 조선‘만’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참된 조선 인식인지는 모를 일이다. ‘중국-조선-일본’으로 이어지는 관계에서 조선은 조선 자체이면서 동시에 중국을 매개하는 존재이기도 하므로, 조공질서의 틀 속에서라면 조선은 조선이면서 중국[唐]이라는 인식이야말로 정확한 조선 인식이 아닐까²³⁾. 이것은 조공질서 속의 조선을 복합적 층위로 재인식하는 여지를 환기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실사구시의 한국학이 동아시아적 지평 속에서 검출되는 것이라 할 때 조선은 복합적 정체성의 시각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셋째, 그러므로, ‘이성적 대화’를 규범화하는 방식보다는 차라리 왜 이성적 대화가 불가능한가라고 물으면서 그 불가능의 조건을 탐색하는 방식이 훨씬 생산적이고 실사구시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 연행사와 통신사의 등급이 다르다는 사실과 연계된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연행사의 차원과 통신사의 차원에는 위계적으로 등급의 구분이 있었다. 계미 통신사의 유명한 사문사(四文士)도 실은 서얼 출신들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방식으로 통신사와 연행사의 등급은 구분되었다. 일본 측 문사들도 대개 번의 하급무사 신분인 유자들이었다. 따라서 자율·평등·보편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직적으로 위계를 달리 하는 복합적 질서 속에서의 자율·평등·보편일 수밖에 없다.²⁴⁾ 연행과 통신의 위상 차이는 적어도 조선의 자기 표상에 두 차원 이상의 구조가 복합되어 있다는 뜻이다. 달리 말해 조선의 대외 관계가 동질적 평면상에서 수행되지 않았고,

22) 임형택, 「동아시아 국가간의 ‘이성적 대화’에 관한 성찰」, 175쪽.

23) 물론 이런 인식은 비난도 내포하고 선망도 의미할 수 있다.

24) 여기서 말하는 위계의 구조가 꼭 가치론적 질서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 크기와 규모의 차이도 있으며, 힘의 강약에 따라 재구조화될 수도 있다. 서세-동아시아-조선을 아우르는 동아시아적 지평이 수직적 높낮이를 가진 지정학적 위계 구조가 가치론적 위계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복합적 구조가 균질적인 이성적 대화의 가능성을 계속 유보시키거나 거기에 제약을 가한 것이다.

넷째, ‘이성적 대화’의 평면적 균질성을 초래하는 배경에는 ‘조선(한국)’이라는 국가 단위를 하나의 균질적 평면 속에서 이해하는 관행이 놓여 있다. ‘이성적 대화’ 논의에 비판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또한 한일 관계 속에서 다루어 보자. 임형택 선생은 오규우 소라이(荻生徂徠)의 조선관을 다루면서, “오규우 소라이는 한일 간에 가로놓인 해묵은 감정이 불공대천의 원수처럼 악화되지 않으려면 선린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발언을 분명히 하였다. 그럼에도 이웃의 조선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어떤 사고의 열림도 없다”고 분석하면서, “일본 열도를 하나의 ‘배타적 전체’로 사고하는” 자국중심주의라고 비판하였다.²⁵⁾ 아래에 오규우 소라이가 주장한 바를 제시한다.

무릇 우리가 변방이라고 일컫는 곳이 네 곳이다. 동쪽 이웃은 모인(毛人)인데 마쓰마에씨(松前氏)가 다스리며, 남쪽은 중산(中山)에 통하는데 사쓰마번이 관할하는 곳이다. 이 두 곳은 이미 우리의 신첩(臣妾)이 되어 있다.

서쪽은 키요오[崎陽]인데 해외의 화이만국(華夷萬國)이 몰려드는 곳이고, 해내의 오민(五民)들이 다투어 모여들어서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곳이다. 국가에서 특별히 전대(填臺)를 설치하고 두 후국(侯國)의 군대가 방어하며, 또 때때로 참정집법(參政執法)의 신하를 파견, 안찰(按察)하고 있다. 다른 변방에 견주어 어찌 이곳이 중요하지 않으랴! 대저 제이(諸夷)들은 하잘것없는 것들이다. 화하(華夏)의 경우 영락 이후로 명나라가 우리와 단절을 했고 우리 또한 청나라와 단절을 한 상태이니, 전쟁이건 우호건 아무런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 예사(禮辭)가 어디에 소용될 것인가. 오직 민간 차원에서 상호간에 교역해 이익을 다투고 있을 뿐이다.

쓰시마부(府)는 그렇지 않다. 대개 우리 북문(北門)을 관장하고 있으

25) 임형택, 「동아시아 국가간의 ‘이성적 대화’에 관한 성찰」, 170쪽.

니 [조선과의] 거리가 2백리 정도이다. 한(韓)은 북쪽으로 흉노와 닿고 서쪽으로 화하와 땅을 연해 있어 두 큰 나라 사이에 낀 것이 춘추시대의 정(鄭)과 비슷하다. 정이 사명(辭命)으로 나라를 유지했던 것처럼 한도 사명으로 나라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문학에 능숙하다. 이 나라는 '우리와 땅이 비등하고 형세도 대적이 되고' 있다.²⁶⁾

오규우 소라이의 변방론이자 외교 정책 제안이라고 부를 만한 내용이다. 인용문에서 동쪽의 모인(毛人)은 아이누인이고 남쪽의 중산(中山)은 유구를 말한다. 이 두 지역은 일본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이어서 언급한 서쪽의 키오요[嵯陽]는 오늘날의 나가사키 지역이다. "해외의 화이만국(華夷萬國)이 물려드는 곳이요, 해내의 오민(五民)들이 다투어 모여들어서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곳이다." 이어서 북문이라고 부른 쓰시마에 대해서 조선과의 외교관계가 중요한 곳으로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대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오규우 소라이가 더 적극적인 제안을 하고 나서지는 않았기 때문에 타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일본 열도를 배타적 전체로 사고한 것은 아닌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성적 대화'와 관련하여 정작 더 눈길을 보내야 할 것은 다른 데 있다.

일본 열도를 배타적 전체로 보는지는 좀 더 따져 볼 일이지만, 그보다 오규우 소라이에게 일본은 적어도 네 가지 방향에서 외부적 압력을 느끼거나 외부와의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나가사키 일대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다. 오규우 소라이의 학문 또한 이러한 조건 속에서 형성되었다. 여기에다가 쓰시마를 들어 조선과의 관계를 주요한 한 축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런 견해는 분명 대외 관계론에 가깝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

26) <쓰시마 서기 우백양에게 주는 글>이라는 제목의 논설이다. 정확한 논의를 위해서 임형택 선생이 직접 번역하여 부분부분 나누어 인용한 바를 다시 편집해서 제시한다. 임형택, 「동아시아 국가간의 '이성적 대화'에 관한 성찰」, 167-169쪽에 있는 내용이다.

본 열도가 배타적 전체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시각이기도 하다. 최소한 변방의 지역별로 다양한 외적 압력이 현존하고 교류가 진행되며 그에 따라 일본 열도는 복합적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편이 온당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 내륙 지역에서야 훨씬 균질적인 성향이 강하겠지만 그 균질성 또한 동서남북이 상징하는 이질적 압력에 절대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4. 당대 동아시아 담론과의 대화

이 또한 '흔들린 조공질서'가 초래한 양태라면, 하나의 국가에 작용하는 외적 압력과 온도는 국가를 구성하는 하위 지역마다 다르게 작용하고 외부와의 관계 또한 국가 내적으로 균질적일 수는 없다는 뜻이다. 가령, 오규우 소라이가 조선과의 관계에 주목했음에도 적극적인 선린책을 보이지 않은 것이 그의 역량 문제가 아니었다면, 일본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외적 압력에 상대적 우선성을 어디에 부여하고 어떻게 여러 압력들을 재구조화하려 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성호 이익이 일본과의 선린 관계를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약용의 일본론이 전개되는 데에는 조선에 가해지는 일본의 현실적 잠재적 압력과 영향이 감지되었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통신사를 파견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였다.

이렇게 볼 때 동아시아적 지평에서의 한국학이란, 외적으로 지정학적 시야의 확장을 요청하는 작업이면서 동시에 내적으로 한국을 하나의 균질적 공간으로 이해하지 않고 한국 내부의 비균질성을 강조하는 방향을 취해야 마땅하다. 흔들린 조공질서가 거의 와해 단계에 이르는 19세기 후반에 와서 청의 봉금 정책이 해제되고 러시아 세력의 남하가 겹쳐지는 가운데 한반도 북부 지역에 작용하는 내외적 압력과 그 밀도의 분포가 달라졌다. 대한제국기에 함경도 지역을 정치적 기반으로 활용하는 세력이 등장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이후 연변의 조선족이나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등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므로 국가 보다 낮은 하위 단위로서의 지방(지역)학이 부각될 필요가 있다. 임형택 선생 자신도 호남학(지방학)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자리에서 호남의 지리적 범주가 상당히 유동적임을 환기하면서 적어도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포함하는 범위가 학적 탐구에 온당하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듯이,²⁷⁾ 하위 단위의 지역 범주 또한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이 연장선상에서 호남은 한국으로 귀속되는 영역뿐만 아니라 한국 외적 제약과 압력에 의해 구성되는 측면도 내포하는 편이 타당하다.

장황한 논의였지만 ‘흔들린 조공질서’를 염두에 두는 동아시아적 지평이란 한국의 위상을 동아시아적 수준에서 비교하는 방향뿐만 아니라 한국학의 대상으로서의 ‘한국’을 이질적 복합체로 재구성하는 인식을 함께 수행하는 장을 의미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국가 단위 수준에서 동아시아세계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그것대로 소중한 성과라 하겠지만, 그와 반대 방향에서 한국(사)라는 인식 공간에 동아시아적 계기를 내부화하는 과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요컨대 세계적 차원·동아시아적 차원·한국(한반도)적 차원·지방(지역)적 차원이 한국이라는 지정학적 공간에 동시적으로 작용하는, 또 한국이라는 공간이 이러한 복합적 차원의 규정적 힘에 대응하는 양상과 방식을 학문적으로 인식하는 방향이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이겠다. 또한 바로 이러한 지평이 학문적 주체의 복합적 주체성을 구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비판적 제안은 한편으로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이 현재 동아시아 현실과 깊은 연관을 생산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물론 한국에서 형성된 동아시아 담론은 그 성격과 층위에 따라 서로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백영서 선생에 의해 제기된 ‘핵심현장의 동아시아’(이하 ‘핵심현장론’) 관련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 동아시아 담론에서 보이는 한 가지 뚜렷한 편향이 ‘한국(한반도) 중심주의’라 하겠는데²⁸⁾, 이에 대한 나름의 진전과 성취가 ‘핵

27) 임형택, 「한국학과 호남학」,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225-226쪽.

28) 이에 대해서는 류준필, 「분단체제론과 동아시아론」, 『아세아연구』 52권 4호,

심현장론'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이 자칫 동아시아를 균질 평면으로 설정하고 한국 중심의 동아시아세계론으로 흐를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현재의 동아시아세계를 대략 떠올려 보면 동(북)아시아는 한반도(남과 북)·중국(그리고 타이완·홍콩·마카오)·일본(그리고 오키나와)이라는 다양한 정치체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내부적으로 수렴과 확산의 강력한 긴장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일본의 북방 지역과 아시아 남쪽 해양 지역에서 첨예화되는 영토 분쟁까지 감안한다면 동아시아세계의 내적 역학은 상상 이상의 수준으로 복잡하고 다층적이라 하겠다. 따지고 보면, 국가 간 관계는 물론이고 국가 경계 내부의 하위 지역에서조차 이질적인 역사적 경험이 중첩되어 있다. '조공질서' 같은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적용해도 그렇지만, 특히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이 본격화된 이래 동아시아 지역 내부에서 벌어진 억압과 침탈이 그 주된 이유라 할 수 있다. 대부분 근대의 상흔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협력체를 구상한다고 할 때, 이미 존재하는 억압과 위계 구도는 물론이거니와 예상되는 폐해를 억제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임형택 선생의 '이성적 대화'와 그 출발점을 같이 하는 문제라 하겠다.

'핵심현장론'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저에 두고 제안되었다. 동아시아론에서 한국/한반도를 특권화할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이중적 주변의 시각'이 스스로를 갱신한 성취이기도 하다. 이중적 주변이란, 세계사적 차원에서 주변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동아시아에다가, 그 내부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중심-주변의 역학을 결합하는 시각이다. 중심-주변의 상호 관계는 복잡한 연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이 과정에서 억압을 이양하는 구조를 함의한다. 결국 '이중적 주변'이란, 중심으로부터 차별과 억압을 경험하는 주변의 일원이면서, 자신을 상대적 중심으로 하는

2009에서 논의하였다.

더 주변적인 곳과의 중심-주변 관계를 재생산함으로써 차별과 억압을 생산·이양하는 복잡한 억압 구조에 대응하려는 방법적 자각이다.²⁹⁾ 요컨대 주변이 스스로를 중심처럼 특권화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자각적으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이중적 주변의 시각-인용자)는 또한 동아시아 근대세계의 국민 국가 형성과정에서 국가 간 경계를 구획하는 국경과 국민 통합(과 배제)이 중시됨에 따라 주변적 존재로 무시되어온, 국가의 틈새에 위치한 무수한 '국가 형태를 지니지 않은' 사회가 만들어낸 다양한 역사를 되살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³⁰⁾

이를 위해 '핵심현장론'에서는 '핵심현장'이라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인식의 구체성과 실천성을 부각한다.³¹⁾ "동아시아는 평면적이고 균질적인 국가들의 조합이라기보다는 중층적인 중심과 주변으로 나뉠 수 있는 입체적이고 비균질적인 지역이다. 따라서 '이중적 주변의 시각'을 보다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시공간에 대한 인식이 뒤따라야 한다." 바로 이러한 복합적·중층적 시공간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그런 인식의 가장 적절한 대상을 두고, 백영서 선생은 "핵심현장"이라고 부른다.³²⁾

백영서 선생은 하나의 범례처럼 진먼(대만)·오끼나와(일본)·개성(한반도)을 제시한바, "서구 중심의 세계사 전개에서 비주체화의 길을 강요

29) 백영서, 「주변에서 동아시아를 본다는 것」, 『주변에서 보는 동아시아』, 문학과 지성사, 2004; 백영서, 「동아시아론과 극대극복·근대적응의 이중과제」, 이남주 엮음, 『이중과제론』, 창비, 2009, 84-85쪽, 97-98쪽, 최원식, 「주변, 국가주의 극복의 실험적 거점」, 『제국 이후의 동아시아』, 창비, 2009, 224-226쪽.

30) 백영서, 「'핵심현장'에서 찾는 동아시아 공생의 길」, 『핵심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다시 묻다』, 창비, 2013, 33쪽.

31) 이하 백영서 선생의 '핵심현장론'에 대해서는, 류준필, 「분단체제론과 동아시아론」, 백영서·김명인 편, 『민족문화론에서 동아시아론까지』, 창비, 2015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32) 백영서, 「'핵심현장'에서 찾는 동아시아 공생의 길」, 17쪽.

당한 동아시아라는 주변의 눈과 동아시아 내부의 위계질서에 억눌린 주변의 눈이 동시에 필요한 곳이라는 입장에서였다. 국가와 비(非)국가 사이에서 그 위상이 유동하는 대만의 진먼도, 중국·일본·미국 등 이른바 외부 국가권력에 의한 ‘처분’의 역사로 점철된 오키나와, 남북의 주권이 중첩된 개성을 대표적인 핵심현장이라 거론할 때³³⁾, 이러한 동아시아론은 이미 한국/한반도 중심주의의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한반도의 층위에 동아시아적 계기를 내재화하려고 한다.

이것은, ‘분단체제’라는 시각에서 한반도를 인식하는 임형택 선생의 시각과도 생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경로를 환기한다.³⁴⁾ 가령 핵심현장론에서는 통일과 관련하여 한반도의 복합국가를 구상하는데, 이때 통일 과정에 참여하여 복합국가를 구상하고 수립해가는 주체의 시각을 어느 층위에 둘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한반도적 차원에만 제한되는 것인지,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고려되는지, 또 복잡한 층위들에 어떤 우선성을 부여할 것인지 등등에 따라 복합국가의 구상은 전혀 다른 형태를 띠게 되는 것처럼,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또한 동일한 물음을 대면할 수밖에 없다.³⁵⁾

백영서의 ‘이중적 주변의 시각’은 어떻게든 한반도의 복합국가 구상에 동아시아적 계기를 포함하려는 사상적 고투처럼 읽힌다. 한반도적 층위에만 시선을 고정시킨다면, 결과적으로 대만·홍콩·오키나와 등과 같은 규모의 정치체가 한반도 내부에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백영서 선생의 핵심현장론은 한반도 복합국가 구상을 동아시아적 시각

33) 백영서, 「복합국가와 ‘근대의 이중과제’: 20세기 동아시아사 다시 보기」, 『핵심 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다시 묻다』, 167-181쪽.

34) 임형택, 「분단체제하의 한국에서 학문하기」,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442~461면.

35) “국가와 비국가 사이에 처한 ‘아시아의 고아’ 대만(본섬)으로부터도 억압당한 주변적 존재인 진먼, 외래정권들의 복합적 중압의 역사를 감당해온 오키나와 및 남북한의 국가주권이 중첩된 개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험세계는 분명 국민 국가를 상대화하는 소중한 사상자원이다.” 백영서, 「복합국가와 ‘근대의 이중과제’: 20세기 동아시아사 다시 보기」, 181쪽.

에 따라 재조정한 진전이라 평가할 만하다. 핵심현장론의 동아시아적 지평이란, 동아시아적 질서의 복잡한 위계적 구조를 인정하고 그 다양한 층위들의 복합 구조에 근거해 한반도 복합국가 구상을 전개하는 실천적 인식이다.³⁶⁾ 동아시아세계의 현재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임형택 선생이 설정하는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에 수용하는 작업은 중요한 과제이다. “현실적 요구에 응답하는 것도 (개인 연구—인용자) 못지않게 의의가 있으며,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³⁷⁾고, 선생 스스로 그러한 신념을 보였기에 더 그렇다. 그런 점에서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은 이제 그 출발지에 서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36) 분단체제론의 가장 근본적인 약점은, 식민지 시기의 한국을 적극적으로 포함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53년 이후를 중심으로 분단체제론을 제시하기 때문에 동아시아적 계기를 내포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하다.

37) 임형택,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의 ‘책머리에’(7쪽)에 밝힌 소회이다.

- 김명호, 『연암 문학의 심층 탐구』, 돌베개, 2013
- 류준필, 「분단체제론과 동아시아론」, 『아세아연구』 52권 4호, 2009
- 백영서, 「주변에서 동아시아를 본다는 것」, 최원식·백영서 편, 『주변에서 보는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2004
- 백영서, 「동아시아론과 극대극복·근대적응의 이중과제」, 이남주 편, 『이중과제론』, 창비, 2009.
- 백영서, 「'핵심현장'에서 찾는 동아시아 공생의 길」, 『핵심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다시 묻다』, 창비, 2013.
- 백영서, 「북한국가와 '근대의 이중과제': 20세기 동아시아사 다시 보기」, 『핵심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다시 묻다』, 창비, 2013.
- 백영서·김명인 편, 『민족문학론에서 동아시아론까지』, 창비, 2015.
- 임형택, 「계미 통신사와 실학자의 일본관」, 『창작과비평』 85호, 1994.
- 임형택, 「19세기 말 20세기 초 동아시아, 세계관적 전환과 지식인의 동아시아 인식」, 『대동문화연구』 50, 2005.
- 임형택, 「동아시아 실학의 개념 정립을 위하여」, 『한국실학연구』 18, 2009.
- 임형택, 「17~19세기 동아시아 상황과 연행·연행록」,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창비, 2014.
- 임형택, 「동아시아 국가간의 '이성적 대화'에 관한 성찰」, 창비, 2014.
- 임형택, 「동아시아세계의 지식교류 양상」,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창비, 2014.
- 임형택, 「동아시아에서 유교문화의 의미」,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창비, 2014.
- 임형택, 「한국학과 호남학」,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창비, 2014.
- 임형택, 「분단체제하의 한국에서 학문하기」,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창비, 2014.
- 최원식, 「주변, 국가주의 극복의 실험적 거점」, 『제국 이후의 동아시아』,

창비, 2009

岸本美緒, 「東アジア東南アジア傳統社會の形成」, 『岩波講座 世界歴史 13』, 岩波書店, 1998.

葛兆光, 「從“朝天”到“燕行”- 以朝鮮使者在明清帝國旅行記爲中心討論十七世紀中叶后東亞文化共同体的解体」, 『중국과 중국학』 3호, 2005.

夫馬進, 「一六〇九年 日本の琉球併合以降における中國・朝鮮の対琉球外交-東アジア四国における冊封・通信そして杜絶」, 『朝鮮史研究会 論文集』 46, 2008.

〈Abstract〉

On the ‘East Asian Horizon of Korean Studies’
-About ‘the shaken tribute system’ and ‘reasonable dialogue’-
The Review of *The East Asian Horizon of Korean Studies* (written by Im
Hyung-taek, Changbi, 2014)

Ryu, Jun-pil
(Inha University)

‘The East Asian Horizon of Korean Studies’, which is suggested by Im, Hyung-taek, posits Korea at a locus of mediator in the East Asia centered on ‘China-Korea-Japan’ relationship. He concentrates on the normative models of ‘reasonable dialogue’ while characterizing the East Asian world through three centuries since 1500 as ‘the shaken tribute system’. However, his suggestion tends to be lead to the teleological projection and homogeneous extension by the fact that it presupposes the East Asia as a unitary space. East Asia, which cannot be reduced to a group of equal political bodies, needs to be reconstructed on the basis of different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entities of China, Korea, and Japan. ‘The East Asian Horizon of Korean Studies’ could be respected through such efforts of reconstruction.

Key words: the East Asian Horizon of Korean Studies, Im Hyung-taek, the shaken tribute system, reasonable dialogue, Shilhak

논문접수일 : 7.15 / 심사기간 : 7.16 - 8.5 / 게재확정일 : 8.10